

옛날 한시에 「高枕石頭眠[고침석두면]」이라는 구가 있다. 돌베개를 높이 베고 잔다는 말이다. 세상을 버린 한가한 사람의 모양을 말한 것이다. 「脫巾掛石壁[탈건쾌석벽]. 露頂灑松風.[로정쇄송풍]」 — 갓 벗어 바위에 걸고, 맨머리에 솔바람을 쏘이다」 함과 같은 맛이다.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산길을 가노라면, 무거운 짐을 벗어 놓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을 보는 일이 있다. 대단히 시원해 보인다.

구약성경에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좋은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을 버리거나 잊은 사람은 아니요, 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려는 불붙는 야심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 민족의 큰 조상이 되었다.

나는 연전에 처음 이 집을 짓고 왔을 때에 아직 베개도 아니 가져오고 또 목침도 없기로 앞개울에 나가서 돌 하나를 얻어다가 베개를 삼았다. 때는 마침 여름이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맛은 참 시원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돌베개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베개에는 한 가지 흠이 있으니 그것은 무게가 많은 것이다. 여간 기구로는 도저히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광릉 봉선사에 유할 때에는 다른 돌베개 하나를 구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잘생긴 돌이었다. 대리석과 같이 흰 차돌이 여러 만년 동안 물에 갈리고 씻긴 것이어서 희기옥과 같았다. 내가 광릉을 떠날 때에는 거기 두고 왔다.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노라면 외양간에서 소의 숨소리가 들린다. 씨근씨근 푸우푸우하는 소리다. 나는 처음에는 소가 병이 든 것이나 아닌가 하였더니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십여 일 연하여 논을 가느라고 몸이 고단하여서 특별히 숨소리가 크고 또 가끔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못난이니, 자빠뿔이니 갖은 험구를 다 듣던 우리 소는 이번 여름에 집 논을 갈았다. 흉보던 집 논도 우리 소는 노엽계도 생각하지 않고 갈아 주었다. 그리고는 밤에 고단해서 수없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